

시 김영순

봄은 그냥 오는 게 아니다

이별의 아픔으로 식음을 놓친
겨울 강 우듬지 끝에서
속살거리다 온다

외로워 기침으로 쿨럭인 날을 건너
파르르 떠는 입술로
고백하며 온다

옛갈림의 터에서
죽정이 날려 버리고
겨드랑이서 날개 돋은 뒤에 온다

뭇다 부른 그리움
그렇그렇 축축이 젖으며
나무 등걸에 수 놓으며
온다

심연에서 뽑어 올린 열정
균센 팔 걷어 올리며 온다

버려진 마음들로 위태로운 밤을
털며
협차게 응원하는 함성
은방울 찰랑찰랑
만방에 깃발 되어 휘날리며 온다

약력
▲'문학춘추' 수필등단
▲광주문인협회 이사
▲수상 : 세계문학상 본상, 문학세계문학상 본상, 호남시조 문학상, 문학공간 다카시 문학상 대상, 윤동주 문학상 최우수상, 세종대왕 문학상 최우수상, 대한민국 예술문학세계 대상, 황금천문학상 대상

약력
▲'문학춘추' 수필등단
▲광주문인협회 이사
▲수상 : 세계문학상 본상, 문학세계문학상 본상, 호남시조 문학상, 문학공간 다카시 문학상 대상, 윤동주 문학상 최우수상, 세종대왕 문학상 최우수상, 대한민국 예술문학세계 대상, 황금천문학상 대상

시 김정진

염원을 펼치다

거실엔
송산댁의 정감 어린 미소가
한 묶음 해바라기로 있다
사진 속 어머니
오며 가며 스치는 하루가
자꾸 나를 돌아보게 한다
잘 살고 있느냐고
말 대신 눈빛으로 묻는다
평범하게 산다는 일은
생각보다 오래
접어 두어야 하는 염원 같은 것
끝내 건너지 못한 강을
자식에게 대물림하는 일인지
모른다
가만히 어머니 앞에 서면
자꾸만 작아지는 자화상
어머니를 닮은 일
그건 아직
펼치지 못한 염원
잠시
어머니의 숨결이
내안에서 바다가 되어 밀려왔다가
아득한 경계에서 소회하는
나는 다시
하루가 제자리로 온다

약력
▲문학세계 시, 서석문학수필등단
▲한국문인협회 회원, 전남문인협회 이사
▲광주문인협회 이사, 용이 박용철 기념사업회 이사
▲다형 김현승 기념사업회 회원, 화순예총 이사
▲화순군수공로상, 화순문학작품상

시 임금남

가슴속에 남아 있는 시

어느 시인의 그림자가
백 년 이백 년 우리 곁을 따라다
닌다
숨길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는 시의 발자취

흔하디흔한 국화 바라보며
시 한 편 썼을 뿐인데
세월 따라 바람처럼
거침없이 달려가는 한 편의 시

오늘도 누군가는 시를 읊고
교단에서 강의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느 시상식장에서는
낭송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이 마음속에도 저 유명 시는
세상 떠돌다 낯익은
허락도 없이 수시로 드나들며
시인이란 이미지 굳게 심어 놓는다

뿔을 래야 뿔아낼 수 없이
사망으로 뻗어버린 튼튼한 뿌리
가을이면 더한층 번창해

국화 송이 송이마다 시향이
도록도록 영글어가고 있다.

약력
▲아시아서적문학, 문화엔피플등단
▲광주시인협회 이사, 광주문인협회 이사, 서울문인협회 회원
▲문학공간 회원, 한용운문학 회원, 한국문학 회원
▲수상 : 원전공감단시조문학상 차상, 문화엔피플 작가상, 윤동주 별문학상, 꽃다리문학상 우수상, 대한민국 독도 문예대전 특선
▲저서 : '봄날을 삼키다' 외 7권

수필 박인순

입술이 먼저 아는 봄

1960년대의 푸른 봄은 지난보다 허기진 계절이 먼저 도착했다. 가을에 거둔 곡식은 이미 바닥을 보였고, 들판의 보리는 아직 채 열리지 않은 채 초록빛 바람만 일렁이던 시절. 그 아득한 '보릿고개'를 넘겨 해준 것은 대지가 밀어 올린 비릿한 풀냄새였다. 춘궁기 사람들의 밥상은 된장만 버무린 냉이와 쪽국, 달래 간장의 알싸한 향으로 채워졌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은 건강한 보약이었으나, 당시의 우리에게 그것은 생존의 위로였다. 역설적이게도 그 모진 시절을 견디게 한 것은 가장 낮은 곳에서 돌아온 푸성귀들이었다. 자연이 차려준 그 투박한 식탁 위에서 사람들은 쓰디쓴 삶을 삼키며 다시 일어설 기운을 얻곤 했다.

햇살이 등줄기를 간질이는 봄날, 고부는 보리밭 고랑에 나란히 앉았다. 시어머니는 마치 땅과 대화라도 하듯 묵묵히 호미질에만 전념했다. 보리 사이를 비집고 올라온 독새기와 갈퀴당굴은 그녀에게 한낱 잡초가 아니라, 삶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청객이었다. 시어머니의 호미질은 정직하고 규칙적이었

었다. 평생 흙과 풀 속에서 살아온 시어머니에게 나물 이름은 숨쉬기보다 쉬운 것이었으므로, 그녀는 며느리의 제안에 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까짓 흔한 나물 이름 어려울 게 없다고 생각한 시어머니가 먼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곰밥부레." 광대나물을 뜻하는 그 정겨운 방언은, 소리 내는 순간 입술을 세 번이나 친절하게 꼭꼭 맛부딪히게 흘러나왔다. 시어머니의 삶처럼 정직하고 투박한 그 단어는, 며느리가 처놓은 금기를 먼저 위반했다. 뒤이어 며느리가 나비처럼 가볍게 속삭였다. "나싱게." 냉이를 부르는 그 나물 이름은 며느리의 영악한 입술 사이를 단 한 번의 마찰도 없이 유유히 빠져나갔다. 승리를 확신한 며느리는 호미를 던져두고 "나싱게, 나싱게" 노래를 부르며 발두둑으로 달아났다. 시어머니는 멀어지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여전히 풀을 쥐어뜯었다. 어쩌면 그 간사한 속내를 알면서도, 산에서 우는 소쩍새보다 눈앞에서 얼쩡거리 푸점이 된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며느리는 발두둑 그늘에서 달콤한 성취감을 맛보며 낮잠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대지는 결코 너그러운 상대가 아니었다. 그녀가 누운 곳은 따뜻한 온기가 감도는 개미집 위

였고, 때 이른 온기에 눈을 뜬 불개미들이 침입자를 향해 일제히 기어올랐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시어머니가 그 긴 사례를 홀로 다 밀어냈다. 시어머니가 영명이 묻은 흙을 털려고 수건을 탈탈 털는 소리에 눈을 떴다. 며느리는 일어 서자마자 비명에 몸부림으로 몸을 비비 꼬았다. 내기에서 이겨 일을 피했다는 쾌감은 순식간에 온몸을 찌르는 통증과 가려움으로 바뀌었다. 집으로 돌아와 아궁이 앞에서 저녁을 준비하는 며느리는 불을 지피면서도 몸을 뒤틀고 옷 속을 긁어대는 오두방정은, 그녀가 부렸던 잔피의 업보였다.

시어머니는 그저 흙 묻은 손을 씻고 들어와 담담하게 부엌문 쪽으로 한마디를 툭 던졌다. "불개미가 올라왔구나. 옷을 벗어 냉감을 쪼이거라."

그제야 며느리는 깨달았다. 자신이 발두둑에서 꿀잠에 취해 있을 때 시어머니는 묵묵히 제 할 일을 다 하며 기다려 주었던 것이었다.

청보리밭 너머로 흐르는 향기도 품어 안으며, 보리는 참으로 의연한 곡식이다. 싹을 틔우면 밟아주어야 하고, 모진 추위를 견뎌야

비로소 알곡을 맺는다. 밥을 지을 때도 숙련된 손길로 물에 불리고 끓여야만 비로소 부드러워진다. 그 정직하고 고단한 과정을 거쳐야만 얻을 수 있는 보리밥처럼, 우리네 삶도 뜰 뜰하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했다.

이제 들판의 파란 보리 물결도, 나싱게와 곰밥부레를 부르던 정겨운 음성도 전설처럼 희미해졌다. 디지털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 시니어들은 카톡방의 단조로운 대화 속에서 향수를 달랜다. 하지만 가끔 봄바람이 불어올 때면, 그 시절 보리밭 고랑 사이에서 벌여졌던 고부간의 은밀한 밀담이 떠오른다.

며느리의 잔피조차 우직한 가슴으로 받아내던 그 시절의 정서. 그것은 차가운 화면 속 정보가 아니라, 매캐한 냉갈 냄새 속에 섞여 있던 따뜻한 위로였다. 입술이 먼저 알아버린 그 봄의 맛은, 알팍한 승리가 아니라 결국은 서로를 보듬어 안는 사람의 향기였다.

약력
▲문학예술신문사 등단
▲문학공간 단편소설 등단
▲한용운문학작가 우수상 수상
▲문학세계 '시' 본상 수상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 상주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원지국 955-0451
- 광산지국 944-0993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남문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